

1992 년도 지방토론회(전북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 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전주에서 그 지역 언론계 · 학계 · 법조계 · 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를 초청 지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992년 5월 1일 전주 코아호텔에서 열린 전북지방토론회에서는 서정우 위원(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언론보도와 수용권」이라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주제논문과 토론내용을 초록한 것이다. ……편집자 주

### 언론보도와 수용자 주권

서정우

연세대 신방과 교수 · 중재위원

언론은 인간의 표현본능(알리려는 욕구)과 정보욕구(알려는 욕구)의 사회적 구현에 해당된다. 따라서 언론의 본질은 인간을 떠나서 존립되기 어렵다. 언론의 자유주의이론에 의하면, 언론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정보제공의 도덕적 권능을 위임 받은 국민적 기관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언론은 언론사주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신탁된 기관이란 뜻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정치이념을 의미한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나라 일을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라안팎에서 일어나는 나라 일에 관하여 상세히 알지 않으면 안된다. 현대사회에서 나라 일에 관하여 국민이 아는 방법은 어떤 공적 기관에 맡겨서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이 된다. 언론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 때문에 탄생된 기관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론은 국민을 떠나서 존재하기 어렵다. 언론이 존재하니까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존재하니까 언론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언론을 두고 국민의 신탁된 기관이란 뜻은 바로 이러한 관계를 의미한다. 언론은 수용자를 떠나서 존재하기 어렵다. 수용자는 언론의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언론의 주체인 것이다. 수용자는 현실적으로 신문과 방송이 필요로 하는 재정의 대부분을 광고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독자와 시청자는 신문이나 방송의 존립과 성장을 결정하는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언론과 수용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겠다. 수용자란 신문을 읽고 방송을 시청하는 인간의 집단을 의미한다. 수용자상의 변화는 인간본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수용자상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인간상에 대한 변화와 대중상에 대한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수용자상의 변화는 ① 소극적 존재로부터 적극적 존재로의 변화, ② 수동적 존재로부터 능동적 존재로의 변화, ③ 정태적 존재로부터 동태적 존재로의 변화, 그리고 ④ 쉽게 변화하는 존재로부터 완고한 존재로의 변화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매스미디어와 수용자의 관계가 변화하게 된다. 과거의 관계모형이 「매스미디어는 수용자를 위해 무엇을 하며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면 오늘날의 관계모형은 「수용자는 매스미디어와 더불어 무엇을 하며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 된다. 수용자는 매스미디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수용자는 자신의 요구와 의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수신자의 개념이 수용자의 개념으로 변모되는 것이다. 매스미디어와 수용자의 관계는 일방향적이고 직선적인 차원에서 쌍방향적이고 순환적 차원으로 변화된다. 매스미디어와 수용자의 관계에 있어서 피드백(Feed-back)의 중요성과 여론의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용자의 재발견」의 명제가 제기된다. 오늘날의 수용자는 과거의 수용자가 아니다. 수용자는 매스미디어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객체가 아니고 주체가 된 것이다. 언론과 수용자의 이러한 관계는 바로 언론보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에 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언론보도는 인간의 자아실현이나 자기완성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 언론보도는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능해야 한다. 언론보도는 조직의 합리적 결정을 돕고,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돕고, 국가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능하고, 세계평화와 지구공동체의 구현을 위해서 기능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에 귀속된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언론사에 신탁된 자유가 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자유로부터 연유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감시할 책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언론이 보도의 자유를 책임있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화됨으로써 자율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언론의 문제는 결국 수용자의 문제로 귀결된다. 수용자의 문제는 곧 수용자의 주권의식의 정립과 직결된다. 수용자 주권은 언론과 수용자가 동시에 노력할 때 정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용자 주권은 언론의 노력만으로도 성취되기 어렵고, 수용자의 노력만으로도 성취되기 어려운 개념이다. 언론은 수용자주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문화되어야 한다. 전문화를 성취하는 길은 ① 교육과 훈련의 개선, ② 언론인 충원방법의 개선, ③ 윤리화의 제도적 작업, ④ 조사연구제도의 정착, ⑤ 심의제도의 정착, ⑥ 비평의 활성화, ⑦ 전문기구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⑧ 대기자제도의 도입과 운영 등이 된다. 수용자주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수용자가 착수해야 할 과제로서는 ① 수용자의 의식개혁, ② 수용자의 매체교육의 강화, ③ 수용자의 매체참여의 확대, ④ 수용자의 매체비평의 활성화 그리고 ⑤ 수용자의 매체소비자운동의 전개 등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수용자의 주권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되는 것이다. 수용자의 주권리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때 우리 사회는 보다 나은 언론, 보다 나은 사회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미국 미네소타주립대 대학원 (신문학 박사)

저술: 「신문학이론」 (공저), 「언론통제이론」 (공저), 「국제 커뮤니케이션론」 외

현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 ABC 협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